

반성문

(꼭 A4 용지에 자필로 아래 내용을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성명 방영진

생년월일 1978년 6월 19일

저는 2025년 12월 17일, 은평구 불광동 부모님 댁 앞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사건 이후 매일같이 스스로를 돌아보며,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깊이 뼈아프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반성문을 통해 저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를 입은 가족과 사회에 진심을 다해 사죄드리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10년 동안 누구보다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살았다고 스스로 믿어왔습니다. 가족과 직원들, 그리고 사회 구성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저는 그 신념을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가까운 거리라는 이유로 스스로에게 타협하며 운전대를 잡은 제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죄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순간을 떠올릴 때마다 제 자신을 저주할 만큼 부끄럽고 후회스럽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 음주운전이라는 행위가 단순한 법 위반이 아니라 생명과 사회를 위협하는 범죄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깊이 새겼습니다. 짧은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지 다시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의 행동은 비단 저 자신만의 잘못이 아니라, 저를 믿고 살아온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큰 실망과 걱정을 안겨드린 행동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피해를 본 사람은 제 가족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은 평생 저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애써 오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믿음에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부모님께서 사건 이후 보여주신 충격과 실망의 표정은 지금도 잊히지 않으며, 그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제 가슴은 무겁게 짓눌립니다.

배우자와 딸 셋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모범적인 행동을 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족들에게 불안과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세 딸들이 바라보는 아버지의 모습이 무너졌다는 생각은 저에게 가장 큰 죄책감으로 남아 있습니다. 딸들은 평생 아버지를 존경하며 자라왔는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 신뢰와 기대를 배신한 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 큰 걱정과 실망을 주었습니다. 직원들은 저를 믿고 따르며, 회사의 미래와 자신의 생계를 함께 걸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저는 철저한 자기관리와 책임감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회사의 대표로서 너무나 부끄러운 행동이었고, 직원들의 신뢰를 저버린 결과가 되었습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저를 지켜야 할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회가 안전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법과 질서를 지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금지는 모든 국민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저는 이 당연한 의무를 어겼고, 사회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제 잘못으로 인해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나쁜 본보기를 보였다는 점이 몹시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사건 이후 저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첫째로 **전면 금주**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단 한 잔의 술도 입에 대지 않으며, 그로 인해 건강과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둘째로 **재범방지교육을 성실히 수강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음주운전이 가져오는 위험성과 법적 책임, 피해자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사회 전체에 끼치는 영향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제 마음가짐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과정이었습니다.

또한 **금주 클리닉에 주 2회 방문**하며 스스로 술과 거리를 두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의학적 도움과 심리적 상담을 병행하면서, 제가 왜 술과 관련된 경각심을 충분히 가지지 못했는지 분석하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제 삶을 돌아보고, 스스로를 더 건강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정신과 상담치료를 주 1회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저는 제 감정의 흐름, 스트레스 관리 방식, 그리고 순간적인 판단이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배우고 있습니다. 상담은 단순한 감정 정리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더 안전하고 성숙하게 살기 위한 정신적 기반을 쌓는 과정입니다.

만약 같은 상황이 다시 나타난다면 저는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먼저 제 행동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지금 이 선택이 나와 가족, 사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교육에서 배운 **3초 멈춤 호흡법**을 통해 스스로를 제어하고,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는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깊이 배웠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의 남은 인생 동안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감 있고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의 잘못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점을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을 제 삶의 마지막 실수로 만들고, 앞으로는 절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저는 제 잘못으로 인해 실망하고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특히 부모님, 배우자, 딸들, 그리고 저를 믿어주던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는 이런 아픔을 주지 않겠습니다.

사회와 법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더욱 강하게 단련하며 살아가겠습니다.

2025년 (작성일 기재)

작성자 방영진